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라져야 하고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혹은 가능한 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파우스트는 이런 감정에 대해 유명한 희곡에서 “잠시만 머물러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모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 머물면서, 초막 셋을 지어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자, 혹은 최소한 이 순간을 더 오래 지속시키자.”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즉 우리가 바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시간이 흐르면, 하느님 안에 있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메리 워드가 이 말을 남긴 상황은 어땠을까요?

1627년 11월 24일, 비엔나

뮌헨에서의 창립 이후,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비엔나의 황제, 더 정확히는 황후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원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몇몇은 이를 경계했지만, 메리는 1년 만에 두 번째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나, 이 날짜 일주일 전, 주교 대표단이 방문을 왔습니다. 방문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마지막 질문은 “왜 지역 주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가?”였습니다. 메리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뮌헨에서 선출자를 신뢰했던 것처럼, 황제를 신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곧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료 수녀 빈프리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메리는 주로 자신의 걱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한 예수회 신부가 반대하고 있었고, 이미 지원했던 몇몇 젊은 여성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길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이 굳은 신부님과 몇몇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행복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메리 워드는 소망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더 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틀은 문제의 본질과 사소한 결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모든 것을 명확히 보이지는 않아도 더 넓은 맥락에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녀는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메리는 우리가 어떤 것이 결국 남을 수 있을지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합니다.

- **하느님 안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즉 사랑.
- **하느님을 위한 것:**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작은 노력들.

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더 넓은 맥락에 놓고 내 삶이나 현재 상황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 삶에서 하느님 안에 있었고, 하느님을 위해 있었던 순간들에 머물러 봅시다.